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3·끝>

“바르게 믿고 행해 참사람되자”

‘正信·正行’의 기수 광우 스님 前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은 ... 1939년 15세에 직지사에서 성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 상주 남장사에서 해봉대화상을 계사로 사미니게 수지. 최초의 비구니 강원 상주 남장사 '관음강원'에서 대교과 졸업. 비구니최초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산림법회. 1958년 정각사를 창건하고 <신행불교>를 간행하는 등 정신·정행(正信·正行)의 가치를 들고 정법의 당간지주를 세웠다. 뇌허불교학술상을 제정하고 2002년에 뇌허 김동화전집 전14권을 펴냈다. 1986년 <묘법 연화경>번역간행, 전 7권 사경.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대통령 표창 받음. 전국 비구니회장을 8년 역임하면서 비구니 회관을 완공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공양 실천회 이사. 비구니 별호계단 전계대화상. 2007년 조계종 최초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 저서로는 번역 <묘법 연화경>,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회향> 등이 있다.

빛 광(光)자, 비 우(雨)자 광우 스님. 속명은 이광우. 범명과 속명이 들어 아니다.

부친 해봉(慧峰) 스님은 빛이 되고 자비로운 감로수가 될 법기(法器)임을 아셨는지 광우라 이름했다. 마치 부처님이 제자에게 수기를 내리시듯.

올해 세수로 미수(88)이고 법랍 73세인 광우 스님의 수행이력을 돌아보면 법답게 범명처럼 정진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보통학교(초등학교)를 마친 광우는 진학을 준비하느라 당대의 선지식 해봉 스님의 주석처 상주 남장사에서 한여름을 보냈다.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들은 광우는 이를 만에 <천수경>을 졸졸 외었다. 참선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참선하다 졸고 있는 스님의 턱 끝에 손가락 송곳을 만들어서 갖다대고 있다가 큰 스님에게 들켰다.

큰 스님은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때 소녀 광우는 질문했다.

“왜 스님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어요?”

“광우야”

“네”

“대답하는 그 놈이 무엇이나? 어떤 놈이 있어서 대답을 하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보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 ‘모르겠다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 앉아있는 거란다”

“저도 참선하면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물론 그렇지.”

광우는 참선을 하게 해 달라고 큰 스님에게 졸랐다. 큰 스님은 안된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입승 스님이 기특하게 여겨 선방에 들게 했다. 어린 소녀는 탁자 밑에 앉아 참선을 흉내 내다.

학교 공부보다 절집 공부 재미있었던 광우는 이듬해 15세에 출가했다.

이어 어머니도 출가했다.(명성 스님)

속명도 광우 범명도 광우

광우 스님의 수계 범명은 태우(泰雨)이다.

스님이 태우보다 광우라는 범명을 쓰는 이유는 해봉 큰 스님에 대한 존경심에서다.

“빛 광 자는 지혜가 빛나라는 뜻이고 비 우 자는 만물을 키워주는 자비로운 비가 되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으니 출가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사연을 아신 은사 스님도 당신이 지어준 태우는 그냥 갖고 있고, 광우가 더 좋은 범명이니 그대로 살면 훌륭한 중이 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70여 년을 돌아보면 범명처럼 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광우 스님은 비구니 최초 강원인 남장사 관음강원에서 수학하고 선방으로 갔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 한국 최초의 비구니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선원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1958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정각사를 창건했다.

광우 스님은 도심포교를 결심했다. 54년 전 포교 여건이 좋지 않은 시절, 빈 터에 절을 지은 광우 스님은 <법화경>에 나오는 ‘일체중생 회견여래’를 포교사의 모델로 삼았다.

전법서원 정각사 창건

“회견보살은 자기 몸을 소신공양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법화경 ‘권지품’에서는 부처님이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에게 일체중생 회견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시지요. 그건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포교하는 법사가 돼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바로 마하파자파티 같은 비구니 대법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의 자질과 능력은 차치하고 서원만은 그렇게 세웠지요. 그래서 정각사를 짓고 포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정각사(正覺寺)는 ‘바른 깨달음을 이뤄가는 절’이란 뜻이다. 절 이름은 김동화(金東華) 박사가 지었다. 포교를 하되 불법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믿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한 것이 정기법회입니다. 어린이,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일반신도법회를 개설하고 매주 법회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정각운동을 그렇게 시작했다.

정각사 법회는 저절로 소문이 났다. 당대 최고의 불교학자들이 설법하고 강의한 일요정기법회에는 서울시대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

다. 황성기, 원의범, 홍정식, 김동화 박사의 강의를 듣기위해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동국대 학생들이 꾸역꾸역 몰려왔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윤호균 씨(한국심리학회 회장·가톨릭대 교수), 성대 박상길 씨, 역사학자 이이화 씨, 교회목사, 통일교회 책임자 등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정각사에 왔다. 훗날 정각사에서 공부한 분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식인으로 중추적 역할을 했다.

“지금도 사람마다 정기법회를 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몇 십년 전에는 손꼽을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정기법회가 기독교의 주일예배를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수행자는 재가불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설법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재가 불자도 재계를 닦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각사 정기법회에는 법당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자량을 모르고 늘 당신을 낮추는 광우 스님도 “정각사가 정기법회를 정착 시킨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불사였다”고 자인했다.

정각사 창건... 정법의 당간지주세워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 완공

<법화경> 번역 유포·전7권 사경

폭우 쏟아져도 큰법당서 조석예불

1967년 발의하고 68년 창립총회를 갖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국비구니회가 1985년 9월 재건되고 2003년 8월 지금의 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갖기까지 스님은 ‘비구니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8년간 비구니회를 이끌면서 120억원의 불사비가 투입된 비구니회관 건립을 완공했다. 임원들과 전국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했다.

“비구니 회관 건립을 위해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스님이 원력을 모은 결과입니다. 1996년과 1997년은 좀 과장하면 길에서 보면 시간이 절에서 보면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고마웠던 분은 진관사 진관 스님입니다. 1968년 비구니회 발기때부터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그때도 전국을 순회했는데 이번에도 부회장을 맡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 아니었으면 불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120억원 불사비 중 85억원을 한마음선원에서 쾌척했습니다. 조계종 7천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불사는 그렇게 회향했습니다. 한마음선원에 임차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소중한 빛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광우 스님은 2003년 8월 19일 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마치고 며칠간을 멍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그 불사에 혼신을 다했다.

정각사 살림을 뒤로 미루면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공지를 심어줄 비구니회관 건립 불사를 마무리한 스님은 그해 10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사보 '신행불교' 27년간 발행

정각사 포교활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7년간 매일 펴낸 사보 '신행불교' 발간이다. 처음에는 '신행회보'라고 하다가 '신행불교'로 이름을 바꿔 통권 324호까지 간행한 이 잡지는 문서포교에 큰 몫을 했다. 군부대, 교도소, 해외까지 널리 법을 전했다.

'신행불교'의 모토는 정신(正信) 정행(正行), '바르게 믿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되자'였다.

정각사가 어떤 신행을 가르치고자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였다.

서윤길 교수, 맹란자 선생, 박선영 교수, 스님의 상좌 정현 스님 등이 이 잡지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특히 맹란자 선생은 '10년 발원'으로 이 잡지를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했다. 스님은 이 잡지의 공덕을 그분들에게 돌렸다.

스님의 전법은 정각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초석을 다졌다. 1989년부터 6년간 관장을 역임하면서 서울 목동신도시 청소년 교화모범시설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국비구니회를 반석에

광우 스님을 빼고는 전국비구니회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67년 발의하고 68년 창립총회를 갖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국비구니회가 1985년 9월 재건되고 2003년 8월 지금의 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갖기까지 스님은 '비구니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8년간 비구니회를 이끌면서 120억원의 불사비가 투입된 비구니회관 건립을 완공했다. 임원들과 전국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했다.

“비구니 회관 건립을 위해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스님이 원력을 모은 결과입니다. 1996년과 1997년은 좀 과장하면 길에서 보면 시간이 절에서 보면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고마웠던 분은 진관사 진관 스님입니다. 1968년 비구니회 발기때부터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그때도 전국을 순회했는데 이번에도 부회장을 맡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 아니었으면 불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120억원 불사비 중 85억원을 한마음선원에서 쾌척했습니다. 조계종 7천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불사는 그렇게 회향했습니다. 한마음선원에 임차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소중한 빛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광우 스님은 2003년 8월 19일 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마치고 며칠간을 멍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그 불사에 혼신을 다했다.

정각사 살림을 뒤로 미루면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공지를 심어줄 비구니회관 건립 불사를 마무리한 스님은 그해 10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법화행자의 길 70년

광우 스님은 평생 <법화경> 공부를 남달리 해 온 법화행자다. 포교활동도 주로 법화경 강설로 했다. 1986년 <묘법연화경>을 번역출간하며 대학 도서관까지 법공양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송할 때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게 번역된 점이다. 그리고 스님은 법화경 6만 9천 84자를 매일 기도하듯 사경했다.

“절에 처음들어왔을 때 해봉 큰 스님이 <법화경> 실상서를 주면서 외우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실상서란 송나라 때 계한 스님이 불인 해제이니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분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언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일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원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차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랑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랑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패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그램



'희견여래'를 포교사 모델로



광우 스님(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은 지난 7월 중국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했다.



광우 스님이 주석하는 정각사 불이경사 1층의 불단.



광우 스님은 긴 염주 천주를 돌리며 매일 독경과 암송을 한다.



① 27년간 발행한 정각사 사보 '신행불교', ② 스님의 수행 70년을 정리한 대담집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라>, ③ '신행불교' 권두언을 모은 책 <회향>.

다. 제법 긴 글인데 하루만에 외워 스님께 갔더니 칭찬을 하시면서 큰 붓 한자루를 주셨어요. 저와 <법화경>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정각사를 창건하고는 조석예불을 마친 뒤 반드시 <법화경>을 한 번씩 읽기를 수행의 정업으로 삼았다.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경> 산림을 했다. 사숙인 금봉 스님의 당부로 매년 열흘씩 법화경 강설을 했다.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의 핵심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도 외면의 대상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것은 불교의 대자대비입니다. 우리가 범회 때마다 외우는 사홍서원도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가르침이 원형입니다. 이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실천하여 온 세상이 그대로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우 스님이 범회행자 70년 수행의 길을 걸어온 뜻이 여기에 있다.

해봉 스님과 김동화 박사

“해봉 큰 스님은 저에게 가장 얽힌 스승이자 가장 자애롭고 고마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스님의 부친 해봉 스님(1874~1956)은 고종 28년 18세의 나이로 출사해 공내부 주서(종4품)로 12년간 관직에 있었다. 세상의 무상을 느낀 스님은 30세(1904)에 상주 남장사 영봉 화상 문하로 출가했다. 노장 유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불교경전과 어록을 읽고 참선을 한 스님은 때로는 강설을 펴고 때로는 선리를 참구, 당대의 선지식으로 제방에 그 명성이 자자했다. 상주 남장사 조실로 20여년간 주석하면서

고봉 스님, 관음 스님 등 훌륭한 제자를 많이 길러낸 큰 스승이었다.

광우 스님이 해봉 스님의 일기와 계승을 묶은 <해봉선사 유집>을 2007년에 펴내 해봉 선사의 행장이 알려졌다.

해봉 스님의 법제자로서 현대불교학계의 태두인 뇌허(雷虛) 김동화 박사(1902~1980)도 광우 스님에게 큰 스승이었다. 김 박사는 광우 스님이 동국대학에 가도록 권유했다. 정각사를 창건하여 정법불교운동을 펴고 '신행불교'를 창간하고, 비구니회를 설립하도록 아이디어를 준 분이 김동화 박사다.

광우 스님의 김동화 박사에 대한 존경은 남다르다. 스님은 김 박사 타계 후 1982년 '뇌허 불교학술상'을 제정하고 매년 발표된 가장 우수한 논문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14회까지 시상하고 중단됐다. 2002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뇌허 김동화 전집'(전 14권)을 간행, 해외 도서관까지 배포했다.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릴뿐 아니라 불교학 발전을 도모하는 불사였다.

정각사를 제자 정목 스님에게

신도들이 불사금이나 또는 스님 용돈 쓰시라고 봉투를 가져오면 그걸 모아 장학금으로 썼다. 큰 성금을 가져온 불자의 범명을 장학금 이름으로 정하기도 했다.

매년 겨울, 스님 생신이면 어려운 마을 어른들을 초대해 식사와 용돈봉투를 선물했다.

2009년 7월 22일 스님은 상좌 정목 스님에게 정각

사 주지직을 넘겼다. 스승과 제자는 10년 간이나 "주지직을 맡아라, 아닙니다"를 반복하다 결국 정목 스님은 은사 스님의 당부를 받아들였다. 광우 스님은 그날 <신행불교> 권두언에 쓴 글을 모은 책 <회향> 출판기념회도 아울러 가졌다. 일체를 회향하신 듯 스님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 늘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유머 감각이 더 늘었다.

병원에 가지자고 하면 "얼마나 오래 살려고 병원에 가느냐. 남들이 욕한다"며 안가실려고 한다고 정목 스님이 귀띔한다.

지난 여름에는 중국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손사와 현산 스님과 신도들이 모시고 다녀왔다. 천불탑전에서 부처님 한분 한분께 절을 하셨다.

정각사는 대웅전만 그대로두고 요사채 등을 현대식 통유리집으로 새로 짓고 있다. 그 현대식 건물 불이경사 1층에 해봉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조 아미타여래 탱화와 작은 불단이 있다. 스님은 매일 그 앞에서 긴 염주 천주를 돌리며 독경과 암송을 한다. 무릎을 구부리고 1시간 40분씩, 무릎 기원하느라고 여주어보면 "내가 할 것이 하나밖에 더 있나. 내가 갈 곳밖은 내가 가꾸지."

폭우가 쏟아져도 스님은 큰법당 조석예불을 거르지 않는다. 현산 스님이 범의를 비에 젖을까 보자기에 써서 법당에 갖고간다. 12월 20일 기자를 만난 스님은 "찾아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 별게 아니야. 사 진도 찍지 말고 쓰지도 말아"라며 극구 사양하셨다. '체로금풍(體露金風)'의 모습이니. 스님의 말씀, 움직임이 모두 범향으로 피어난다.

글·최정희 편집이사 ·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장식이 지나쳐

길을 걷는다. 걷다 보면 눈이 시리도록 하얀 눈을 본다. 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장식이다. 숨 쉬고 있는 나무에 전선이 얼기설기 얽혀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장식이라 하면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다. 라틴어의 decorare에서 영어의 decoration이 나왔고, ornare에서 ornament가 나왔다. 우리말로로는 모두 장식이라고 번역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코레이션은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장식을 의미한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걸작으로 실재를 장식할 경우 데코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특정 표면을 치장하고 꾸미는 장식 모양은 오너먼트라고 부른다. 오너먼트의 모티브는 다양하지만 기하학적인 장식과 자연적 장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기하학적인 장식이란 직선, 원, 점 등을 주제로 한 것이고, 자연적 장식이란 식물, 동물, 풍경 등 자연물에 의한 것이다.

성인의 탄생을 기뻐하는 장식품이 너무 지나쳐 보인다. 누구나 예전 광화문 거리의 모습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그 우람했던 은행나무의 모습. 특히 연말의 모습이 선연하지 않은가.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는 나무가 가련하다. 무지한 인간의 소행이 한 생명체에 무고한 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단 서울의 모습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유럽에서는 깨진 집사나 천조각으로 장식한다니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자리에서는 환경이 어둡고 생태계에 엄청난 교란이 올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도 걱정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신약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참 인상적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성구는 인간이 외장 보다 내면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말이다. 실은 자세히 보면 이 성구의 번역도 잘못된 말이다.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Aramaic)가 있다. 그 지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다. 아람어로 gamta는 밧줄이고, gamla는 낙타이다. 번역할 때 밧줄을 낙타로 오역한 데서 연유한 말이다. 실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는 쉬워도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일 거란 비유가 온당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낙타가 나오니. 이번 성탄절이야 그렇게 넘긴 다해도 다음부터는 무고한 나무에게 전기 고문 시키는 일은 그만 했으면 한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쳤으면 한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매어서는 못 쓰는 일인 줄 알면서 매사를 얼버무려 넘기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맹과니가

될 것인가. 현란함에 지친 현대인의 영혼을 보라. 감잡을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은 일상의 일이 되고 말았다. 파열된 브레이크가 제어 기능을 상실하여 살상의 무기가 되듯이 현란함에 취하고 지친 영혼은 환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요행을 바라고 있다. 그 단편적인 사례로 복권이 그리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던가. 하기가 에ammel무지로 한 일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

암흑가에는 네온사인이나 장식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어느 곳 보다 화려한 장식들이 많다. 그러나 암흑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폭력과 범죄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본다. 팔 하나 움직일 기력조차 없고 말았다. 입가에 파리가 앉아도 쫓을 힘도 없다. 고대 이집트어로 '아프리카'가 '고향'이라고 한다. 우리 고향의 아이들이 손에 쥘 것이 없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타박이 많다. 마음에 장식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그럴리는 없을 터인데 말이다.

수행승에게 분노의를 입게 했던 것은 외장을 경계한 표본이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냄마조

가로수 성탄 장식 가려해

현란한 현대인들 보는데

각을 모아 이어 만든 웃으로 무슨 외장이 될 리 만무하다. 내면의 세계를 관조하라는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의 대차대조표 보다 얻은 것과 버린 것의 대차대조표를 견주어 보는 것이 소중하다고 본다. 누구나 나에게서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지 않은 습관과 거친 말씨가 그렇다. 추녀에서 눈썹이 떨어지는 모습에 눈길이 머물렀다. 계곡의 말바닥에서도 오순도순 말을 건네며 흐르는 눈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지붕 위에 쌓여진 눈송이도 자태를 드러낸 후 물방울이 되어 대지를 촉촉이 적셔준다.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려하는 연약한 눈송이가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리는 저러한 유익한 변신을 할 수 없단 말인가. 가능한 일이다. 외벽의 장식보다 내면의 장식을 서둘렀던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연재를 마치며 매주 글을 확대 복사, 코팅까지 하여 주변에 읽히게 했던 천동화 보살님의 신심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쓰기도 글을 읽고 위안을 받고 있다는 박주미 작가의 쾌유와 평안을 본다.

회자정리의 이별을 뭍소 실감하는 시간이다. <글>



佛陀釋迦世尊에서 傳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해동의 6祖 慧能大師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묻혀버린 正法이 1,300餘年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修行路 “禪林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說해져 있다.**

판매처: 불서총판운주사 ☎(02) 3672-7181~5 / 부산영광도서 ☎(051) 816-9500



■ 편저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격 : 상권 15,000원 / 하권 15,000원
■ 발행처 :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시 기장군 철마상동로 54
☎(051)515-8888(대)
출판등록 제11-67호

<p>한지인촌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장 : 100매 비닐포장</p>	<p>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9×20cm • 포장 : 100매 비닐포장</p>	<p>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 9×20cm • 포장 : 100매 비닐포장</p>
<p>삼매 삼재품이 판매가 800원(200개 이상) 판매가 1,000원 • 포장 : 봉투 삽입</p>	<p>경면한지 불살삼재품이 판매가 1,000원(200개 이상) 판매가 1,200원 • 포장 : 봉투 삽입</p>	<p>한지 삼재품이 판매가 700원(200개 이상) 판매가 900원 • 포장 : 봉투 삽입</p>
<p>금강경탑다라니 판매가 180원(600개 이상) 판매가 250원 • 포장 : 봉투 삽입</p>	<p>[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판매가 400원(450개 이상) 판매가 600원 • 포장 : 봉투 삽입</p>	<p>신년맞이기도부 판매가 800원(200개 이상) 판매가 1000원 • 포장 : 봉투 삽입</p>